

# 광주 송정역~서울 강남 100분도 안걸렸다

**SRT 미리 타보니**  
수서역까지 97분에 주파  
의료·쇼핑 등 편의 향상  
좌석간 넓고 KTX보다 저렴  
휴대폰·노트북 충전 가능

14일 오전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SRT(수서발 고속열차)는 채 100분도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수서역에 도착했다. 광주에서 열차에 올라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책 읽기 몇 장 넘겼더니 서울 강남이 눈앞에 다가왔다. KTX처럼 빠르고 요금과 편의성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인데, 도착지는 서울 용산역이 아닌 강남 수서역이라는 점에서 'SRT는 제2의 KTX'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특히 SRT가 광주 송정에서 강남으로 직행한다는 점에서 삼성 서울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시설, 제2롯데월드 등 쇼핑·유흥시설, 주요기업 본사 등을 가려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중 정식 개통 예정인 SRT를 이날 미리 타보니 우선 널찍한 좌석이 눈에 들어왔다. 교통 혁명을 불러온 KTX는 일반석이 울퉁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지만 이날 타본 SRT는 무릎과 좌석 사이의 간격이 KTX보다 75mm 확대돼 비좁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다.

이용객들이 열차 이동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볼 수



14일 미리 살펴 본 SRT(수서발 고속열차) 일반객실의 모습. 앞좌석과 무릎 사이 간격이 기존 KTX보다 최대 75mm 확대되고 휴대전화 충전, 노트북 사용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좌석마다 콘센트가 설치된 게 특징이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있도록 좌석마다 콘센트가 설치돼 있는 점도 KTX와는 달랐다. 화장실도 KTX 등 기존 열차는 남녀가 함께 사용했던 것과 달리 SRT는 명확히 구분했다.

KTX보다 평균 10% 저렴하게 책정된 요금도 운영사인 (주)SR이 내세우는 장점이다. 광주송정~수서 구간 요금(4만700원)은 광주송정~용산 KTX 요금(4만6800원)보다 13%가량 저렴하다. 목포~수서 구간 요금도 4만6500원으로 KTX보다 10%가량 낮은 수준이다.

호남선 SRT는 최고 속도 시속 300km로

광주 송정~수서역을 97분 만에 주파하도록 설계됐다. 하루 20회(편도) 운행된다. 좌석은 410석(특실 33·일반실 377석), 하루 평균 총 1만6400석 규모다. 광주~수서(289.6km) 구간은 하루 11편, 목포~수서(356.4km) 구간은 9편이다.

SRT 개통으로 철도 운영 체제는 기존 코레일 독점 체제에서 경쟁 구도로 재편된다. 운영사인 (주)SR은 SRT 개통으로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양 시간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 산업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차

역은 SRT 전용역인 수서·동탄·지제역 등 신규로 건설된 역사 3곳을 포함해 총 11개다. 수서~지제역까지는 신규 고속철도를 이용하며, 천안 아산역부터 목포역까지는 기존 KTX 고속철도를 함께 사용한다.

(주)SR 관계자는 "11월까지 시범 운행한 뒤 부족한 점을 보완, 12월 중 본격적으로 탑승객을 맞이할 예정"이라며 "SRT가 보유한 '빠른 여행시간, 저렴한 요금 정책'에 더해 안전관리 또한 꼼꼼하게 신경써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꺼지지 않는 '촛불 민심'

전북·울산 등서 '박근혜 퇴진' 집회·시국선언  
오늘 서울대 등 15곳 '숨은주권찾기' 시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14일에도 지방 곳곳에서 계속됐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 촉구 원주 시민대 촛불집회 같은 시각 강원 원주농협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울산 시민공동행동 역시 이날 오후 울산의 한 백화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부산진구 서면 주디스 대학 백화점 앞에서 시국 집회를 열어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대구·경북진보연대와 경북 울산사회정책연구소도 각각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 15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

꾸린 '숨은주권찾기'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할 계획이다.

서울대·중앙대·숭실대는 강남역에서,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는 신촌에서, 한국외대·서울시립대·경희대는 한국외대 정문에서, 성신여대·국민대·성균관대는 대학로에서 집회·행진을 한 다. 집회 신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행진 경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함께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학 내 아시아연구소에서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김정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 안봉근·이재만 소환...박 대통령 압박 속도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조력했다는 의혹을 사는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이 14일 오전 나란히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초동 검찰청 사에 나온 안 전 비서관은 "검찰에 올라가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비서관은 오전 10시 25분께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문건유출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을 주는 것을 알았나', '최순실씨와 얼마나 자주 만났나' 등의 질

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응답을 피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국정개입을 도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일단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최순실씨를 비호하며 깊이 유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 조사는 16일께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의 평소 역할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지역 주력산업 침체 실적자 양산...자영업자 몰락 '도미노'

**위기의 경제**  
**벼랑끝 민생**

## ⊕ 교통 커지는 서민들

장기불황에 허덕이던 지역경제가 최순실·트럼프 '쇼크'로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면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불황에 따른 자영업 몰락도 가시화해 민생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주력산업 침체 실적자 양산=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암 대불산단단지 등을 중심으로 실적자가 늘고 있다.

조선업이 집중돼 있는 대불산단 내 근무원인이 지난 1월 2만3254명에서 지난 10월 2만146명으로 3108명(13.37%)이 급

영암 대불산단 감원 3108명  
인근 음식점 등 잇단 폐업  
소매유통 경기전망도 '흐림'

감했다. 수치에 드러나지 않는 인원과 산단 내 음식점, 상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의 변동폭까지 감안하면 5분의 1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근무 인원은 급감하지만 업체 수는 증가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입주업체는 지난 1월 260개에서 10월 270개, 가동업체 역시 242개에서 252개로 각각 10개씩 증가했다. 이는 퇴직한 조선업종 일부 종사자가 모여 소규모 임대형 업체를 설립·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영세 규모로 일감이 계속 줄어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호중공업 및 사내 협력사는 76개에서 75개로, 1곳이 감소했으나, 고용인원은 1만4043명에서 1만2368명으로, 1675명(11.93%)이나 줄었다. 협력업체들이 계속 인원을 구조조정하면서 '버티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업이 활황이었던 지난 2014년 고용인원 1만5506명과 비교할 때 3138명(20.24%)이 급감한 수치다.

◇IMF 때 보다 열악..."앞으로가 더 문제"=지역경제 위기는 벼랑끝에 몰린 서민경제에 직결되고 있다. 지역 주력산업이 침체하면서 사업장 인근에 폐업 음식점과 상점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영암 대불산단단지 인근 식당가엔 찬바람만 생생 불었다. 이 곳의 다른 음식점 유리창엔 임대료를 알리는 현수막이 잔뜩 붙어 있었다. 지역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10월 중 광주·전남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9.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지만 두달 연속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이는 전월(99)에 이어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국 평균 101.9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들의 현재생활형편CSI도 92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며 생활형편전망CSI는 97로 전월과 같았다.

또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11월 경기전망조사 업황전망전망지수(SBHI) 역시 전월(87.1)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86.6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초, 중, 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 · 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수업기간 : 2016. 12월 19일(월) ~ 2017년 2월 4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접수문의 : 0621230-7700 ~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